

“구정 완성도 높여 새로운 지방자치 선도”

2022 새해실경

김삼호 광산구청장

“더 높은 수준의 자치행정을 선도하는 광산구를 확립하도록 구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며,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대비하겠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지방자치 30주년을 품은 민선 7기의 사명은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다가올 한 세대의 길을 여는 일이었다”며 “광산구는 그동안 축적한 참여와 자치 역량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뒷받침했다.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을 민선 7기 구정목표로 정한 이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역의 운명을 지역 공동체가 개척하는 자치분권 시대가 왔다”며

안전·경제·행복으로 자치분권시대 기틀 다져
협치 기반으로 ‘손확행’ 10대 핵심시책 추진

“민선7기 광산구는 안전·경제·행복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선도할 기틀을 다졌다”고 자부했다.

그는 “지역에 뿌리내린 협치 문화는 광산 공동체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원동력이 됐다”며 “565건의 수상과 공모 선정을 통해 1,417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성과도 안으로는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밖으로는 다양한 부문과 손발을 맞춘 결과다”고 평가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행복을 구현하는 과학적인 구정 체계를 안착시키며, 협치를 기반으로 한 ▲연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뒷받침한 늘행복 프로젝트 ▲노약자와 동행하며 통원치료를 돕는 ‘휴블런스(휴먼 앰블런

스)’ ▲코로나19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킨 1% 희망대출 등 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김 청장은 “전국 최초로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책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 지난해 행복도가 6.22로 전년(5.3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정부가 시민행복을 구현한 아주 의미가 큰 성과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진입하는 올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대비하면서 구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구정 방향을 밝혔다.

협치에 기반을 둔 민선 7기의 결실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자치분권을 선도할 확실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



지다. 이를 위해 시민 면역력 증진사업과 행복으로 걷기광산, 늘행복 프로젝트를 2.0

으로 확대하고, 광주송정역 1시간맛거리 사업과 광산형 자원 선순환 경제 실현, 메타버스 광산구 월드 구축 등 10대 핵심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의 만족도를 높이는 10대 ‘손확행(손에 확실하게는 행복)’ 시책으로 ▲운동하기 좋은 동네 공원 조성 ▲내 손 안의 행복주차장 서비스 ▲행복 마음 채움터 ▲음식점 손 씻기 시설 설치 지원 등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정의 연속성’ 중요하다”면서 “민선 7기가 거둔 성과는 민선 8기를 성공시키는 훌륭한 도약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 높은 수준의 자치행정에 도달하고,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광산구를 확립하도록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광산구정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봉 기자

지투리 소식

이야기꽃도서관 방학 프로그램

광주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이야기꽃도서관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조선대 SW중심대학산업단 조영주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다.

24-25일에는 초등학교 대상 겨울 독서교실 ‘신나는 메타버스 여행’, 26-28일에는 청소년 대상 겨울방학특강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AI·SW 코딩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현실과 가상의 창의적 융합공간인 확장 가상세계에 대한 정의 및 이해와 관련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을 이용한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광주시 광산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월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추가 신청 접수

광주시 광산구는 다음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12월) 부과되며, 올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약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 납부의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윤영봉 기자



최근 광주시 광산구 직원들이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산구 제공

대형 건축공사현장 긴급 안전점검

내달 4일까지 전문가 합동

광주시 광산구는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했으며, 주택과 및 건축과 담당 직원들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재해예방 및 시공상 안전관리와 안전관리계획서 및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관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비상연락망 작성 미흡 등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선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동절기 안전수칙, 현장 안전관리 준수 등을 안내했다.

광산구는 이번 긴급점검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축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대형 건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관리 철저 등을 안내해 안전한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비아마을 옛 모습 사진 한자리에”

모 심고 새참 먹는 장면 등 70년대 소소한 일상 공유

“이제 개발하기 전 취빙 조형 유희비가 있던 자리야.”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에서 최근 마을의 옛 풍경과 소소한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비아 옛 사진 공모전’은 옛 비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을 모아 마을의 역사를 추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비아동 정장년회가 주최하고, 비아동 주민자치회와 비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 주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총 500여 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공모전에선 1차 심사를 통과한 42점 가운데 23점(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3, 비금상 16)의 작품이 선정됐다.

70년대 모를 심고 새참 먹는 장면, 60년대 설맞이 공동 세배, 전통 장례를 치르



공모전 대상을 받은 오명렬 씨 사진. 주민들이 새참을 먹고 있다.

는 사진 등이다. 택지개발로 아파트 옆 공원으로 옮겨지기 전 취빙 조형 유희비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을의 옛 정취와 풍경을 간직한 소중한 ‘기록’들이다.

대상에 뽑힌 오명렬 어르신(75)은 “공모전 출품을 위해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비아의 옛 모습을 추억하고, 마을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광산구 브랜드관’ 25일까지 설 특별 할인

광주시 광산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쇼핑몰 ‘광산구 브랜드관’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브랜드관에는 35개 업체가 입

점해 있으며, 과일선물 세트와 모싯잎 송편 등을 판매 중이다.

행사 기간 광산구 브랜드관 이용 시 1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여기에 업체마다 별도로 할인을 적용, 최대 53% 할인된 가격으로 설 선물을 구매할 수 있다.

/윤영봉 기자

M 전남매일 | 제11회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